

-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

예산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 일 시 : 2007. 9. 13(목), 15:00~17:50
- ◆ 장 소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 주 최 : 예산군 • 충남발전연구원

◆ 진행 순서 ◆

개 회 식 (15:00~15:25)

- 국 민 의 례
- 개 회 사 김 용 응 충남발전연구원장
- 축 사 홍 문 표 국회의원
권 국 상 예산군의회의장
- 환 영 사 최 승 우 예산군수

주제 발표 (15:30~16:30)

- 좌 장 이 주 훈 한서대학교 대학원장
- 제1주제 발표 예산군 농산업, 희망을 쏘라
조 상 원 충남발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제2주제 발표 예산군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
양 광 호 공주영상대학 교수
- 제3주제 발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신도청 건설에 따른
예산군의 지역개발 방안
윤 준 상 공주대학교 교수

휴 식 (16:30~16:40)

중 합 토 론 (16:40~17:40)

- 토 론 고 남 종 충남도의회 의원
성 기 원 늘푸른예산 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신 동 호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장
오 용 준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승 구 예산군의회 의원
이 원 용 예산군 문화관광과장

정리 및 폐회 (17:40~17:50)

- 목 차 -

제1주제 : 예산군 농산업, 희망을 쏘라

| | |
|-----------------------------------|----|
| I. 변화하는 농정, 그 한가운데의 예산군 농산업 | 3 |
| II. 예산군 농산업의 잠재능력, 제대로 알자 | 7 |
| III. 예산군 농산업, 희망일까 절망일까? | 12 |
| IV. 예산군 농산업이 레드카펫으로 가는 길 | 19 |

제2주제 : 예산군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

| | |
|--------------------------------|----|
| I. 머리말 | 27 |
| II. 예산군 관광여건 분석 및 관광수요전망 | 28 |
| III. 예산군 관광의 문제점 | 36 |
| IV. 예산군 관광개발방향 | 38 |
| V. 맺는말 | 42 |

제3주제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신도청 건설에 따른 예산군의 지역개발 방안

| | |
|------------------------------------|----|
| I. 들어가는 글 | 47 |
| II. 충남도청이전의 개요 및 파급효과 | 48 |
| III.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 56 |
| IV. 예산군의 위상과 잠재력분석 | 62 |
| V. 예산군의 지역개발전략 | 67 |
| VI. 예산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 75 |
| VII. 결론 | 79 |

제1주제

예산군 농산업, 희망을 쏘라

조 상 원

(충남발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예산군 농산업, 희망을 쏘라

1. 변화하는 농정, 그 한가운데의 예산군 농산업

1. 농업은 활기차고 농민은 잘 살고 농촌은 살 곳을 계획한 중앙정부

-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자금 42조원, 농특세사업 15조원, 농업농촌 발전계획자금 45조원 등 천문학적 정부재정투자재원 투입
- 현 정부의 농산업 및 농촌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3년째 투자(이는 현재까지 국고투자금액의 2배 해당 금액)
- 재정투자만이 아니라 농림공무원, 연구원, 지도사, 대학교수 등 농림수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사인력만도 10만명 초과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UR, WTO, DDA, FTA 등으로 이어진 시장개방에 대한 현실은 농산업의 미래에 대해 「붕괴」라는 말로 대변
- 이는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교수가, 농민단체의장이던 자가 농정을 책임져도 중앙 농정에 대한 불신은 뿌리를 더욱 깊게 뻗음
- 농업인들은 조합의 해산 혹은 합병으로 농협 경영 및 사업의 개혁 요구
- 이러한 농업인 혹은 농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농업인의 데모가 가장 과격하다」, 「가능성도 없는 농업에 돈을 쏟아 붓는다」, 「농업이 개방형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

- 이러한 농정기조와 농산업계의 자세로는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거나, 농산업에 대한 희망을 말할 논리 전무
- 이러한 농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희망을 공유하기 위한 품목의 선택과 산업차원의 검토·분석을 통한 지역농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대안 필요

2. 재배생산 및 유통부문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한 예산군정

- 충청도의 북서부에서 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적, 분기점적 지리적 위치에서 경제생활권의 중심은 공주시, 아산시, 홍성군 및 천안시 세력권 영향
- 내포평야로 대표되는 예당호 수계지역으로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자원, 서해안과의 인접한 지역으로 탁월한 온대계절풍이 불어오는 대륙성기후와 하계다우형기후의 특징이 두드러진 대표적 농업지대

| 구 분 | 충 남(A) | 예산군(B) | B/A |
|-------|--------|--------|-----|
| 1차 산업 | 23.6 | 28.4 | 1.2 |
| 2차 산업 | 15.9 | 16.7 | 1.1 |
| 3차 사업 | 60.5 | 54.9 | 0.9 |
| 합 계 | 100.0 | 100.0 | - |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6. 예산군 내부자료, 2006.

- 산업구조로는 농림어업과 공공행정부문에서 특화계수가 높으며, 농림어업 28.4%, 제조업 16.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54.9%로 구성

- 이를 토대로 예산군의 산업을 분석해 보건데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이 적합
- 예산군의 지역경제활동인구측면에서 분석하면, 예산군의 농가수는 12,127세대(2005년)로 전체 세대수의 35.0%를 점유, 충남도 전체평균인 21.6%보다 1.5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농업생산이 지역경제활동의 기반
- 예산의 주요한 특산물로는 쌀을 필두로 사과, 배, 쪽파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사과
- 예산군의 사과농가는 예산군 과수농가의 44.8%에 이르는 1,129농가이며, 재배면적측면에서는 과수면적의 68.4%, 총생산량은 전체 과실 생산량의 74.7%에 해당하는 24,034톤
- 예산군의 사과재배면적은 충남도 전체의 59.3%를 차지, 충남 최대 사과재배생산지이며, 총생산액규모는 2005년산 추정 310억원 규모

| 구 분 | 농가수 | 재배면적 | 총생산량 | 비 고 |
|-----|-------|-------|--------|-------|
| 전 체 | 1,860 | 1,760 | 31,677 | |
| 사 과 | 1,129 | 1,218 | 24,034 | 충남 1위 |
| 배 | 456 | 475 | 6,859 | |
| 복숭아 | 135 | 41 | 508 | |
| 기타 | 140 | 25.8 | 275.8 | |

자료 : 예산군 내부자료, 2006.

- 예산군정의 중심은 중앙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어업과 제조, 관광, 유통을 융합한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을 추구
- 지금까지의 지역산업 발전전략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이상 보완되어 왔으며, 사업계획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보다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적 사업계획을 강조하는 유형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

- 지역산업구조분석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 및 재배의 산지로서의 기반조성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산지물류 및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 집중
- 예산군의 농산업관련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남도종합계획, 충남4대권개발구상,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등에서 「중앙의 선진화된 농림업」의 구현, 맑고 깨끗한 푸른 충남과 첨단녹색산업의 융합지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 21세기 예산장기발전비전전략에서 산업개발부문은 지역산업의 육성, 특색 있는 관광산업의 개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
- 산업개발부문의 산업기반확충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 전술로는 자연친화형산업 육성, 첨단농업벤처산업의 개발 및 육성의 두가지로 압축
- 특히 농산업관련 방안으로는 「농업생산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 농업도시 건설」의 표제하에 신활력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
- 더욱이 예산군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계획 수행
- 그러나,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지역 소득원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을 스스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미흡
- 1923년부터 사과가 재배되기 시작해 80년의 재배생산지로서의 명성과 사과재배면적은 1,218ha로 충남도 사과재배면적의 79%에 해당하는 주산지이며, 예산군의 향토산업 중 그 경쟁력이 최고수준
- 예산군 사과생산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나 연도별 가격 등락폭이 심해, 재배기술의 개선 및 기술보급과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의 모색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능력 향상과 마케팅과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실현 필요

II. 예산군 농산업의 잠재능력, 제대로 알자

1. 농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인자 역량 강화 절대 부족

- 현재까지 예산군 및 관련주체들은 사과사업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관광부문에 지속적 투자 유지
- FTA기금사업 일환의 안전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등 산지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신설 추진
- 그러나 열악한 예산군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인자간 협력네트워크 등은 원활치 못한 실정
- 특히 사과산업 관련 주체들의 혁신마인드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2. 예산군 농산업, 특히 사과관련산업에 대한 잠재능력 평가

- 예산군의 농산업구조는 자연적 여건을 포함 사회경제적 여건도 양호
- 국내 여건만으로 분석하자면 자연여건면에서 예산군은 경북도와 충북지역과는 독특한 기후와 풍토로 맛과 향기가 다른 품질의 사과 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여건은 국내농산물에 대한 극도로 충성적인 국내소비자가 있고, 우리 농산물이라면 수입안전농산물에도 눈 한번 꿈쩍 않는 일반 소비자가 있음

- 대외환경을 주목하면, 자연적 여건은 사과생산 및 국제교역의 주요국을 보면, 전세계 사과생산량의 38%를 생산하는 중국과 칠레, 미국 등이며, 이들중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
- 특히 미국의 경우, 한미FTA체결 당시 사과는 민감품목으로 구분되어 2013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가격과 품질만으로 경쟁해야 하며, 현상태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의 65% 수준
-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조건과 자연적 측면의 불리함을 내부적으로 조율한다면(안방시장만 지켜도) 국내사과산업의 시장은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특히 우리의 사과수출시장은 소득 4만불에 소비인구 1억2천만의 일본과 소비성향이 일본에 버금가는 고급중산층만 2억에 가까운 중국이 주변국에 있음
- 예산군의 사과관련산업을 비교분석하면 예산군은 사과재배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연계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농업인을 중심으로 사과관련 가공상품과 체험농장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다양화 추진
- 반면, 이러한 강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의 붕괴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 특히 지속적인 경작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혁신리더의 부족과 사과유통관련 시스템의 부족, 브랜드의 대표성 상실 등 자연적, 사회경제적 측면의 강점들이 상쇄
- 그렇다면, 예산군의 농산업 특히 사과관련산업의 경쟁력 및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분석할 것인가?
- 과연 대규모 농장과 생산비의 절감, 높은 소득 등을 위한 지원 등에 집중하면 예산군 사과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 과연 대규모 농장을 갖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땅을 구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심을 작목이 없는, 즉 판로가 없으며, 일손이 부족하고 투자를 위한 자금의 조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 예산군의 농산업을 다른지역에 비해 물값이 비싼것도, 일손이 더 부족한 것도, 비료와 농약이 더 필요해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총농경지(과수원)를 다수의 농가가 분산하여 소유하고, 경작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농가소득보전의 문제
- 그렇다면, 노동력부족 혹은 후계인력 부족 및 노령화 등이 국내 농산업 경쟁력 약화를 빚어낸 농산업관련 현실적 농산업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자연적인 한 해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 그렇다면, 인건비와 농자재대, 유통비용 등 생산비용의 문제로 인한 농가소득의 제고가 어렵고,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이 낮다는 문제의식은 어떤가?
- 네덜란드나 덴마크, 프랑스 등 EU제국이 우리보다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시장의 주요 주체로 수출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일까? 농산물의 생산비는 품질의 상하간 차이가 없지만, 가격형성은 시장 차별화와 국민소득의 변화폭에 따라 가격차이가 더욱 크게 형성. 소비자의 요구는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 소비와 직결되면서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별 자체품질수준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가치 제고는 얼마든지 가능
- 또한 농업인의 소득제고 측면에서 우리 농산업이 외국과 비교해 비교열위에 있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산업으로서 존재해온 농업에 대해 뛰어난 성능의 신품종을 가지거나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고자 하려는 연구와 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적 이유
- 만약 뛰어난 성능의 신품종을 보유했다면,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
- 예산군의 주력 농산물인 사과와 경우, 대목묘의 도입으로 일정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렀으나, 예산군 사과단지의 수령이 노령화 되고 관행적인 재배형태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기술의 도입이 지체되는 등 경쟁력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것이 예산군 농산업 경쟁력의 주요한 저해요인이며, 이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 예산군 농산업 및 사과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여러 논문과 보고서 등의 분석결과를 적용해 보면, 사과산업의 활성화는 농장 및 농업경영개선, 신기술의 개발, 신대목의 보급이 아니라 최종소매업소의 판매대 위를 점유할 대안 모색 필요
- 소매장의 판매대 위에 있는 농산물은 단순히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라, 그 농산물이 판매대 위에 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과 기관, 상인 등 시스템이 만들어낸 「시스템상품」
- 즉 현대의 농산업은 단순히 농업인이 노동력과 영농자재를 투입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사가 아니라 농가의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 생산이후의 관리기술과 물류시스템, 브랜드파워와 마케팅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농업 및 농정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는 「고차원 산업」임

3. 지역경제, 농산업, 사과산업만 어렵고, 다른 분야는 희망이 넘치는가?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평균 12조원이 넘는 국고예산을 농림수산부문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에서 매년 1조원이상의 이익을 내고, 대도시 지역의 농협들 중에는 적당한 구실을 찾지 못하면서도 연간 수십억원식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농협이 많음
- 예산군의 경우는 그간 중앙단위 발전계획 및 충남도의 종합계획과 장기발전비전 등에서 첨단녹색산업의 융합지대로 주목받으며 농산업의 생산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

- 더욱이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을 통해 상대적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떨쳐버릴 계획들이 추진
- 예산군의 산업구조는 농산업 및 사과산업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주위의 천안, 아산, 공주, 홍성, 당진, 서산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와 시장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과 관련해 특별히 어렵다고 단언하기는 무리
- 때문에, 도시의 젊은이들의 구직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걱정은 끝이 없음
-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연령 54세에 직장으로부터 퇴직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 등 큰돈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활동으로부터 손을 놓게 됨
- 이처럼, 농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 여건상 일반산업의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발생
-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도 남다른 노력과 특별한 경영노하우 및 기술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대박을 터뜨린 농업인도 다수 존재
- 예산지역에서는 모양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장석윤씨와 사과를 비롯 각종 잼을 생산하는 예산농산의 배규희씨 등이 농산업분야에서의 대표적 성공농업인으로 유명

III. 예산군 농산업, 희망일까 절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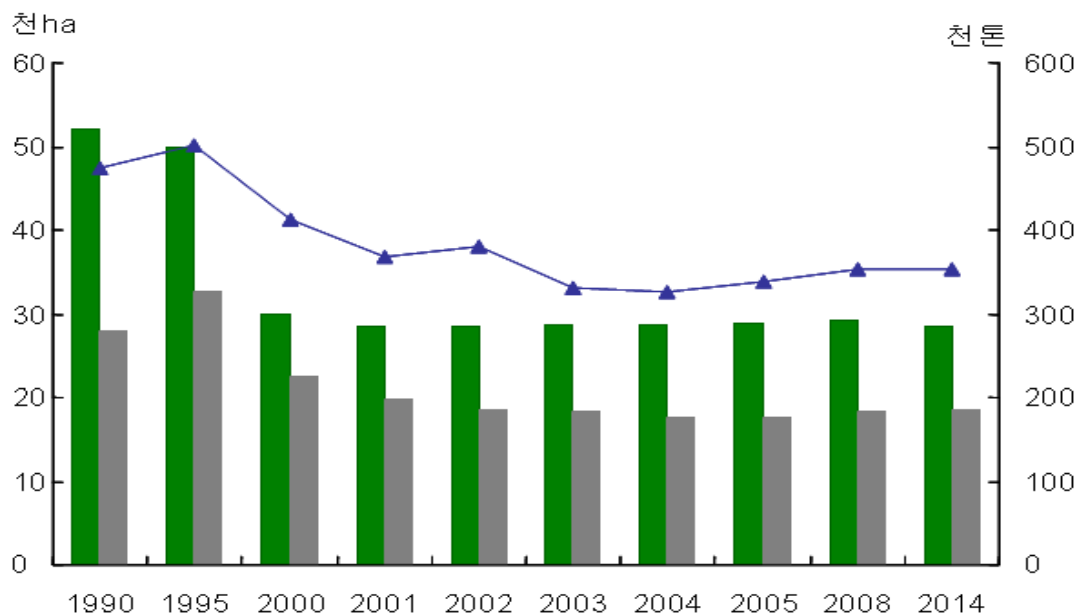
1. 지역농산업이 가지는 지역자원에 대한 다른 접근

- 충분한 농업자산과 잠재력, 가용재원을 두고도 농산업분야가 여타산업군에 성장속도 및 총부가가치크기 등에서 열위에 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선, 개별경영체 단계에서 이제까지의 우리는 농산업의 경쟁대상을 글로벌시장으로 선택하고, 국제경쟁력(수출농산물 수준)의 경영규모와 생산비를 그 척도로 삼음
- 연구기관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기술이 아닌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구미에 맞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
- 대학교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자형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화를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고등실업자의 양성소로 전락
- 농협중앙회는 구·판매 및 이용사업 등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행처럼 신용 및 공제사업(돈장사)과 자산관리에만 치중
- 농업인들은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당면한 과제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거나, 정책자금의 저리융자를 통한 부채탕감 등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조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도전의식과 농산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주인의식을 갖고 연구하고 탐구하지 못함
- 농산업의 비경제적가치(공익적 기능)를 연간 수십조원이네, 백조원이네 하는 추정과 분석결과로 타산업의 경제가치에 준한다는 홍보를 제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하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기는 난항

2. 예산농산업관련 지역자원(사과를 중심으로)의 재평가의 길

1) 사과산업의 현황과 전망

- FTA 등 수입시장 개방확대로 우리나라의 사과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 1993년 사과 생산량은 50만톤을 초과했으나 2005년에는 37만톤으로 감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사과생산량이 중장기적으로 소폭 증가하여 약42만톤 수준이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국내 소비 과일류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순위는 사과 47.5%, 감귤 27.8%, 포도 9.4%, 배 5.4%의 순으로 조사, 국내소비자의 절대적 선호과일은 사과로 향후 시장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

- 예산사과는 해양성 기후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우수한 토질에 기인하여 다른 지역사과보다 당도와 경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과생산에 매우 적합
- 예산지역 생산량의 약 70%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품질과 당도가 높아 소비자, 도매시장 등에서 선호
- 1998년에는 전국 최고의 왜성사과묘포장을 조성하여 우량묘목을 저가에 생산·공급함으로써 키낮은 사과원 및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 사과생산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구 분 | 농업기술센터 대목포장 | 키 낮은 사과묘목장 |
|------|----------------------|------------------------------------|
| 위 치 | 예산읍 신례원리 | 삼교읍 목리 |
| 조성년도 | 2003 | 1998 |
| 면 적 | 17,256m ² | 99,174m ² |
| 생산규모 | 대목 150,000본/년 | 대묘 100,000본/년 신품종 접수 100,000본/년 |

- 농금조합과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으로 최고가로 거래되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무농약 사과를 생산하는 등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실현, FTA 등 농산물수입개방의 대응모델적 성과
- 특히 1995년 이후 재배면적은 연평균 5.5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껍질째 먹는 사과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사과 생산량이 연평균 3.97% 증가 추세
- 예산군 사과생산의 특징은 재배면적 1.0ha 이상이 70%이상으로 평균경작면적이 1.2ha로 상대적 큰 규모의 과원 경영(전국 평균 0.6ha)
- 농가수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경영자의 연령대는 50대가 약 43%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가 32%, 40대가 24%로 나타남

2) 사과시장의 무한경쟁과 제품화시장의 미개척

- 예산군내 사과를 원료로 한 제품가공산업체는 예산농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 이는 예산사과의 시장접근성이 매우 높게 평가한 측면과 지속적 사과산지로서의 명맥유지와 신규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도전의식 부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
- 사과 생과시장은 국내산은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연구회 등의 역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예산사과의 경우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다는 인식에서 독자적인 시장개척과 점유율 유지를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는 유형의 발전 모형
- 더욱이 생과시장은 이미 1993년 이후 무한경쟁시장에 준하는 가격형성과 결정과정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파일렛시장의 필요와 더불어 신규시장의 개척이라는 과제를 안김
- 그러나, 예산군 사과산업의 현황을 분석하면, 매년 예산지역 생산 사과의 10% 정도만 지역내에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에 출하·판매되는 70%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농가에서 다양한 식품의 부재료로 사용 중
- 이처럼 생과시장의 무한적 경쟁과 신규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상품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유형자산화하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미래적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예산사과의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목표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생산, 물류, 가공, 판매, 홍보 및 연구기능을 통합한 강력하고 현장중심적인 지역농정의 시스템화가 필요

3) 희망의 빛줄기가 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찾아서

- 일반농업인들의 작은 소망은“어떻게하면 도시근로자들만큼 잘 살고, 일반국민들로부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 모색

(1) 우선, 우리의 지역농산업은 행정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의 의지와 크게 무관하게 농업인과 농협의 역할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지며, 계획적인 작부체계나 생산, 수확 후 관리, 물류, 제조가공, 판매, 홍보 등이 농업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특징

- 그러나,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경영기술을 개발한 미국, 일본, EU의 많은 나라에서는 농장에서부터 최종소매단계까지 통합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융합형 시스템 농정을 일찍부터 도입,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
- 즉 지역농업인의 수평적 연계통합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차기년도 생산과 영농일정까지 숙의하고 합의함을 통해 지역내 시장의 수요에 대한 대응과 역외출하물량의 추정까지 이끌어내는 고도의 지역농산업매니지먼트기능을 담당
- 때문에, 해당품목과 관련된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과 대 농민지도를 담당하는 전문가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시스템의 한 일원
- 수확 후 홍보 및 판매, 수출, 가공 등은 농민대표가 선임한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시스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이외의 부가가치를 지역주민과 지역농업인의 과외소득으로 전환
- 판매사업에 유능한 주산지의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품목별 연구, 교육,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합 또는 영농회사로 전환, 전국적인 협의체를 형성하는 등 경영단위의 수평적 연계시스템이 구축
- 이는 품목별 전국협의체가 구성, 품목관련 수급조정, 정책의 제안, 수립,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품목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

(2) 둘째, 우리 농산업과 농업인은 수입농산물이 넘볼 수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는 산업이요 지킴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함

- 적어도 예산지역을 이미지메이킹하거나 방문하거나 했을 경우 어디서든 아이들이 떡 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국민 휴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함
- 이는 농산물의 품질인증 및 지역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평가척도가 될 것으로, 맑고 깨끗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신뢰가 형성
- 이는 농산업 이외의 일반국민들에게서 농업·농촌은 국민이 건강을 담보하고, 국민의 휴양공간이므로 보조금과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

(3) 셋째, 희망하는 농민이 필요한 기술 및 기법에 대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생산 및 재배부문, 일반 영농기술에 대해서는 타지역 및 세계유수의 국가 농업인들과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을 수준
- 그럼에도 시군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업관련 지원기관의 교육일정이나 시스템은“아마추어 양성소”와 같은 잡화점식 시스템
- 농업인들의 정확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참여 농업인수 및 교육실시의 계수적 성과에만 급급한 교육이 아닌 전문성 향상도와 활용도 등이 정확히 분석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따라서 희망하는 농업인은 언제나 새로운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새로운 농기계·장비의 조작 및 정비기술, 영농활동과 농외소득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기술의 향상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이러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일정과 시스템을 통해 예산지역의 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산업화를 재촉하는 기능은 물론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어가는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

(4) 넷째, 개별경영체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성과 제고측면과 지구단위 협동화단지의 투자효율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군 과수산업에 적합한 적용가능한 이상적 경영모델 개발 필요

- 예산군 과수산업 특히 사과산업은 생산과 재배의 개별경영화를 줄기차게 고수하여 농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은 물론,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약함
- 이는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투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개별경영체를 포함한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이상적 협업화 모델(지역최적화경영모델)의 개발 필요
-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분 가능하나, 예산군의 경영형태별, 지구별, 경영모델별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는 시스템 필요

IV. 예산군 농산업을 레드카펫으로 가는 길

- 우리의 농산업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던지는 말이 “농업은 사양 산업이고, 우리 농업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고정관념
- 이는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실천적이지 못한 정책을 만들어낸 정치인과 중앙의 무책임한 관리들, 경제성 우선 논리만을 고려한 분석과 추정의 귀재들인 연구자들의 자기회피성 발언에서 비롯
- 그러나, 우리 농산업을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앙의 최고정책결정자로부터 정책의 적용자인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살고자하는 의지와 잘살아보겠다는 오기의 결정체
- 앞에서 열거한 부정적 견해를 극복가능한 과제라는 의식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물류 및 마케팅 체제를 갖춘 “작고 강한 산업의 요정”이 될 수 있음
- 예산군의 지역농산업 특히 사과관련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 가능
- 지역농산업이 개별경영체가 아닌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계하고 서로 상생할 수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산업화 전환, 필요한 기술과 방법 습득을 통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정착이 과제
- 그렇다면, 예산군 지역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의 3가지 과제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1. 최적조건의 농산업 지원네트워크 조건 극대화

- 예산군 지역농산업은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자원의 분포를 살펴볼 때, 매우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기반과 R&D 및 교육 등의 여건이 취약하여 산업의 지역적 집중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이러한 과제는 서해안시대를 맞아 동북아권과의 교역확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군은 당진군과 더불어 산업중추도시로 변모할 기회
- 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지대화의 생산기지화로의 전략을 피하고, 농산업으로서의 청정과 안전성을 담보한 발전전략의 비전을 펼치면 가능
- 우선, 지역혁신인자의 역량을 분석해 보면 예산군은 농업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지리적, 산업적 분포가 최적지
- 연구기관 및 기술지원센터그룹면에서 평가할 때, 예산군을 비롯한 인접지역의 연구기관은 대부분 농축산업 및 생명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업기술원과 지역농산물의 산업화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존재
-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서는 농업과 지역개발, 농산물 가공 등 농업관련 핵심역량을 가진 대학으로 특화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존재
- 또한 인근의 시군에는 혜전대학, 홍성기능대, 청운대, 순천향대, 폴리텍Ⅳ대, 한서대, 신성대 등이 분포, 최강의 진용 포진
- 문제는 이러한 특화된 지역혁신인자들과의 연계관계가 약하며, 무엇을 통해 연계할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 연구용역이나 자문, 중앙단위 사업계획서 준비시 연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점한 몇몇 인사들에 의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역경제파이를 확대시키지 못함
- 이는 예산군의 자체적 문제가 아닌 지역에 산재한 혁신인사들간의 연계의지에 대한 자기반성과 역할 재평가가 필요
- 특히, 지역농업의 산업화를 목표로 출발한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새로운 농업기술 및 보급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술원과 기술센터의 시대 부적응, 대학 및 연구소의 자기방임적 태도는 예산군의 지역농정을 여타 시군과 다르지않은 평범함으로 전락시킴
- 이를 이어주고 맺어줄 기능은 개별 연구자 및 지원기관의 책임자의 몫이나, 혁신인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는 예산군의 아이디어
- 농촌 및 농산업관련 중앙단위 지원사업이 봇물처럼 터진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군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면
- 예산군은 그림으로만의 연계네트워크가 아닌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혁신인사가 네트워크 활동의 장을 만들고
- 그곳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며, 다이렉트컨설팅이 될 수 있는 모임 주선 필요
- 일례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 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산군 사과포럼을 홍보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농산업 및 관련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육성 요건

2. 농산업부문의 특화계수 극대화는 안전성 확보로 직결

- 예산군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업·림업·어업부문이 6.24로 나타나, 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
- 이는 산업구조상 취약한 산업구조로 평가 할 수 있으나, 지역 최대 특화작목인 사과과수산업에는 최상의 결과
-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평균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웰빙과 로하스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지연산업 육성의 키워드
- 예산군의 산업구조상 공해유발산업군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생물·바이오산업군의 집적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세대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용이
- 사과산업의 경우, 예산군의 사과는 당도가 높아 서울 등 대도시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높고, 단위당 가격형성에서도 비교우위 점유
- 그러나, 신세대 소비성향은 웰빙과 로하스로 잔류농약과 성분검사를 만족시킨 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품으로 급격히 전환
- 지역적 특화도와 상품의 선호도가 소비시장의 신호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고품질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농산품의 생산을 위한 체제도입 시급
- 개별경영인의 의지와 투자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 계획이 가능한 경제활동 단계별 그룹핑(Grouping)과 조이닝(Joining), 네트워킹(Networking)이 긴급
- 이를 통해 농산품의 생과시장 점유율 관리 및 아이디어 상품 개발 능력의 향상을 통한 지역공동협업경영체(연계형 농업생산법인)의 발굴 및 육성 필요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농산품의 수급을 조절가능한 체계가 수립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품의 생산지에 대한 중앙의 지원 및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정부투자 저항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필요 기술 및 방법, 스킬의 습득은 전문화 교육시스템으로

- 농협, 농촌공사 및 유통공사, 기술원, 기술센터 등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술의 반복 혹은 아마추어 양성
- 1960년 이후 농업 및 농촌, 농업인 의식제고 등 다방면의 전문가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와 재원과 자산 등이 농산업현장에 문제해결과 애로해소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편
- 기술원, 기술센터,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의식있는 농업인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컨설팅과 온라인교육에 의존
- 기술원, 기술센터 등은 일반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일반농업인이 일정수준까지의 농업정보, 기술 등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최적화
- 지역농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전문화되고 구분된 전문인의 전문적 교육시스템의 체계 필요
- 품목은 다르나 지역인삼경영체의 연계형영농조합법인 형성에 농업기술원과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박사급 인력이 경영컨설팅과 경영전략 수립, 판매 및 마케팅 전술 모색 등의 맞춤형 컨설팅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경영개선효과를 확실히 보이는 것 좋은 예
- 사과과수산업에서도 단위경영체들의 연합체를 조직하고 연계법인의 경영컨설팅을 위한 전문가가 소집되고, 이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면
- 시장 및 경영교육이 심화될 수 있는 시간의 절약과 시행착오의 수렁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2주제

예산군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

양 광 호

(공주영상대학 교수)

예산군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

I. 머리말

- 예산군은 수도권에 근접해 있고, 충남 서북부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덕산온천, 수덕사 등 이름난 관광자원은 물론, 매력성 있는 잠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
-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 충남도청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아산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 인구증가는 예산군 방문 관광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당진-대전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접근성 개선은 예산군 관광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임.
- 충남 서북부 지역으로의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태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계획,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이들 개발계획은 예산군 관광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예산군 관광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산군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산군 관광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변의 여건변화가 예산관광발전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예산군 관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II. 예산군 관광여건 분석 및 관광수요전망

1. 입지여건

- 예산군은 육상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충남 북서부지역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천안시(육로 거리로 38.8km), 아산시(22.2km)가 남동쪽으로는 공주시(53.3km), 대전광역시(88.5km)가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홍성군(20.8km), 보령시(53.2km)에 둘러싸여 있음. 교통망으로는 국도 21호선, 32호선, 45호선, 지방도 622, 609호선과 장항선 철도가 주변 시군들과 연결되고 있음
- 예산군은 대규모 잠재관광시장인 서울 및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2008년 말 당진-대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으로 부터의 접근 외에 대전권에서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입지상 강점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대규모 잠재 관광시장으로부터 예산군까지 직접연결되는 접근로(고속도로)가 없는 점이 약점이라 할 수 있음.

2. 주요 접근로 현황

<표 1> 주요 접근로 현황

| 유형 | 주요 접근로 | 경유지 주요자원 | 경유지 자원특성 |
|----|---------------------------------------|---|----------------------|
| 도로 |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천안 → 아산 → 도고 → 예산 | · 온천자원(온양온천, 도고온천) | · 유명 온천자원 |
| | 서울, 호남 → 서해안고속도로 → 당진 → 예산 | · 삼교호(함상공원) | · 경관감상 · 체험관광지 |
|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해미 → 덕산 → 예산 | · 역사자원(해미읍성), · 자연자원(철새도래지) | · 역사교육관광지 · 철새감상 |
|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홍성 → 덕산 → 예산 | · 역사자원(홍주성) | · 역사교육관광지 |
|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보령 → 광천 → 홍성 → 덕산 → 예산 | · 자연자원(보령해수욕장) 음식자원(광천) 역사자원(홍주성) | · 자연관광지 · 역사교육관광지 |
| | 호남, 영남, 대전 → 공주 → 예산 | 역사자원(공산성,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 · 역사교육관광지 |
| 철로 | 장항선 | 예산역 | |

- 주요 관광시장으로부터 예산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근 시군을 경유해야 예산군에 접근할 수 있음.

3. 주요 관광자원 현황

<표 2> 주요 관광자원 현황

| 자원명 | 주요 특징 | 비고 |
|--------|--|---------------------------------------|
| 덕산온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년의 유래를 지닌 충남의 대표온천 · 최근 대규모 물놀이 공원개장 등으로 방문수요 증대 | · 예산방문 숙박관광객이 주로 투숙하는 지역 |
| 수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계종 7교구 본사 사찰 ·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표사찰 (국보 제 49호, 보물 제 1263호) 보유 | · 예산 대표 관광지 |
| 추사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 김정호 선생 고택 · 추사 문화제 | · 예산8경 |
| 예당저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0만평 전국제일의 낚시명소로 유명 · 예당호 조각공원 조성 | ·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있는 관광지로의 개발필요. |
| 한우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개소의 한우판매소(정육점) 소재로, 한우촌이 형성되어 있음 | · 음식관광 가능성 |
| 의좋은 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에 이야기가 실려 전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이성만과 이순' 형제 이야기 | · 지역과 연계시키고 관광컨텐츠로 활용 가능성 높음 |
| 삼다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가수의 노래로 불려져, 지역이 전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음. | ·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관광개발 노력 미흡 |
| 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대표적 농특산물로 전국적인 명성. | · 인지도를 활용 관광과 연계시키는 전략 미비 |
| 예산 5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전통소갈비 · 민물어죽 · 예당붕어찜 · 수덕사 산채더덕정식, · 삼다리 곱창구이 | · 활용여하에 따라 관광매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가능 |

- 예산군은 덕산온천, 수덕사, 예당저수지 등의 자원과 예산 5미와 같은 먹거리 자원, 의좋은 형제, 호서은행 등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성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예산군 개최 축제로는 매헌문화제, 달집축제, 예당호반축제, 예산국제풍물제, 예산사과축제, 추사문화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외지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부족하고, 행사가 중복되고 있어 1-2개의 대표축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4. 관광계획현황

1) 내포문화권개발계획

- 계획개요
 - 대상지역: 충남 예산군,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955km²)
 - 사업기간: 2005-2014년(10년간)
 - 총사업비: 1조 505억원(국비 4502억원, 도비 4314억원, 시군비 944억원, 민간자본 745억원)
 - 주요사업내용
 - 정신문화창달사업: 4개사업(박첨지 놀이 전수회관 건립 등)
 - 문화유적정비사업: 30개사업(가야산 사적지 주변정비, 내포보 부상촌 조성 등)
 - 관광휴양시설사업: 5개사업(간월도 관광지 조성 등)
 - 도로교통망 확충: 7개 사업(가야산 순환도로(덕산-운산) 개설 등)

○ 예산군 관련 내용

- 유적정비, 기반시설 확충에 중심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군 관련 계획내용으로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가야산 사적지 주변 정비,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등이 있음. 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문객들을 지역중심지로 유도하는 연계개발전략 필요.



- 61 -



[그림1]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도

[그림 2] 서해안권 개발 종합구상도

2)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계획개요

- 대상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해안과 접해 있는 지역
- 사업기간 2008-2017년(10년간)

- 총사업비: 2조1천5백(민자 1조 8천억 원, 국비 643억 원, 지방비 2,880억 원)
- 개발방향: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 중심지대 조성
- 충남 주요사업내용
 - 안면도-대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포츠 및 휴양거점으로 개발
 - 다양하고 고급화된 해양 휴양거점 조성
 - 아산온천, 내포,백제문화자원, 서산 A, B 지구 등과의 연계
 - 백제, 내포문화권 연계역사 문화자원의 관광코스 개발
- 예산군 관련내용
 - 해양관광수요 증대에 따라 서해안을 접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관광계획
 -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대상에 예산군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해 계획내용에 포함시킨 연계관광지로도 포함되지 않음(충남 연계관광지 6곳: 삽교호 관광지, 태안관광레저도시, 아산온천, 만리포 해수욕장, 남당지구, 춘장대 해수욕장)
- 개발이 완료되면, 여름철 관광객을 흡인하는 역할을 할것으로 보이며, 예산군 자원과의 연계전략 필요

3) 태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 계획개요
 -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 관광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 대상지역:충남 태안군 천수만 B지구 일원(14, 624m2)
 - 사업기간:2007-2020
 - 총사업비: 82,719억원(현대건설 13,516, 외부사업자 69,203)

○ 개발구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자연, 건강, 레저시설이 복합된 고품격 스포츠 타운 조성

<표 3> 태안관광레저도시 주요 개발방향

| 구 분 | 개발방향 |
|-----------|--|
| 생태체험공원 | · 종합생태공원 등 천수만 생태환경 보호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보존 |
| 청소년 문화공원 | · 청소년 및 일반대중을 위한 대규모 종합레크레이션 공간조성 |
| 아카데미 웰빙타운 | · 미래의 스포츠,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유치 |
| 첨단복합단지 | · 건강과 생태가 복합된 바이오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조성 |
| 테마파크 | · 관광객 유치효과가 높은 차별화된 테마파크 조성 |
| 생태스포츠 공원 | · 골프의 대중화 및 청소년 꿈나무 육성을 목적으로 대중 체육시설 조성 |

-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내포문화권 관광개발계획, 태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의 추진과 천안 아산권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 충남도청 이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등은 예산군 관광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근의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은 예산군이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5. 관광수요전망

<표 4 >예산군 관광수요 및 향후 수요전망

(단위: 천명)

| 관광객수/연도 | 1996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충청남도 | 39,502 | 56,796 | 85,319 | 94,215 | 113,985 | 135,679 |
| 예산군 | 2,355 (6.0%) | 5,485 (9.7%) | 6,792 (8.0%) | 8,020 (8.5%) | 9,470 (8.3%) | 11,182 (8.2%) |
| 홍성군 | 102 | 1,116 | 2,323 | 3,245 | 4,427 | 5,603 |
| 서산시 | 664 | 1,583 | 2,422 | 2,993 | 3,711 | 4,429 |
| 태안군 | 7,005 | 9,792 | 19,689 | 21,055 | 25,537 | 30,884 |
| 보령시 | 11,618 | 15,534 | 19,156 | 19,174 | 21,642 | 24,078 |
| 당진군 | 1,650 | 2,792 | 4,450 | 5,801 | 7,362 | 8,923 |

자료: 이인배, 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주: 2010, 2015, 2020은 예측치. ()안은 충남 대비 예산군 비율.

-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996년 2,355천명, 2000년 5,485천명, 2005년 6,792천명 수준으로 충남 전체 방문관광객수 대비 8-9%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2.49%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장래 예산군 관광수요 예측전망치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8,020천명, 2020년에는 11,182천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 주요 관광지 연도별 방문관광객 현황

(단위: 명)

| 관광지명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년 |
|-----------|-----------|-----------|-----------|-----------|-----------|-----------|
| 덕산온천관광지 | 2,465,412 | 2,617,096 | 2,596,132 | 4,112,052 | 2,825,722 | 1,120,995 |
| 수덕사 | 1,764,373 | 1,820,942 | 1,839,440 | 1,640,954 | 2,134,192 | 532,280 |
| 충의사 | 342,658 | 350,379 | 346,895 | 357,873 | 378,431 | 158,794 |
| 추사고택 | 184,719 | 180,041 | 174,258 | 90,963 | 192,816 | 54,796 |
| 예당저수지 | 594,805 | 597,330 | 577,757 | 460,880 | 1,094,257 | 193,748 |

자료: 예산군(2007), 내부자료

주: 2007년은 상반기 통계

- 예산군내 대표적 관광지들의 관광객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예산군내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덕산온천 관광지로 2006년 현재 282만여명 방문하고, 이어 수덕사 213만여명, 예당저수지 109만여명, 충의사 37만여명, 추사고택 19만여명 순임.

<표 6> 주요 관광지 월별 방문관광객 현황(2006년)

(단위: 명)

| 월 \ 관광지명 | 덕산온천 | 수덕사 | 충의사 | 추사고택 | 예당저수지 |
|----------|-----------|-----------|---------|---------|-----------|
| 1월 | 166,052 | 72,712 | 6,947 | 5,848 | 13,739 |
| 2월 | 150,032 | 69,703 | 4,203 | 5,609 | 13,506 |
| 3월 | 104,904 | 186,496 | 8,737 | 6,854 | 22,304 |
| 4월 | 180,619 | 125,152 | 33,843 | 11,831 | 25,130 |
| 5월 | 180,320 | 140,149 | 56,484 | 25,518 | 38,750 |
| 6월 | 136,073 | 83,175 | 53,239 | 6,005 | 62,001 |
| 7월 | 251,120 | 124,497 | 21,708 | 18,741 | 154,305 |
| 8월 | 263,357 | 116,141 | 30,437 | 19,953 | 185,759 |
| 9월 | 186,033 | 124,470 | 16,675 | 18,952 | 278,796 |
| 10월 | 335,773 | 398,332 | 49,242 | 25,901 | 99,086 |
| 11월 | 397,135 | 369,136 | 67,728 | 33,766 | 101,141 |
| 12월 | 473,304 | 324,229 | 29,188 | 13,838 | 99,740 |
| 계 | 2,825,722 | 2,134,192 | 378,431 | 192,816 | 1,094,257 |

자료: 예산군(2007), 내부자료

- 주요 관광지별 월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덕산온천 관광지와 수덕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최성수기라고 할 수 있음. 예당저수지는 최성수기가 여름철인 7, 8월로 나타나고 있음.

III. 예산군 관광의 문제점

□ 첫째, 예산군을 대표하는 관광이미지 부재로, 잠재관광객들에게 매력있는 방문목적지로 인지되고 있지 못함.

- 현대를 '이미지 소비시대'라고 할만큼, 지역 이미지는 특정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할 뿐만아니라, 방문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예산군은 '품질좋은 사과생산지'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으나, 대표관광이미지는 없는 실정임. 또한, 전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전략도 미흡해 보임.
- 예산군 관광홍보물 등에는 예산군 슬로건으로 '서해안 관광일번지'라고 표현하고 있음. 슬로건은 지역을 함축적으로 알리고 표현하는 내용이므로, 해안을 직접 접하지 않고 내륙권에 위치한 예산군의 입지적 특성상 합당한 슬로건이라고는 볼수 없음.
- 기존에 예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전국민들에게 예산하면 '사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므로, '품질좋은 사과 생산지'라는 이미지임. 따라서, 예산의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예산군은 '서해안 관광일번지'가 아니라 '사과생산의 일번지'라고 하면 합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슬로건과 이미지로는 관광객에게 매력있는 목적지로 소구하여 방문을 유도할 수 없음.

□ 둘째, 고속접근체계의 미비로 주변시군에 의한 관광장벽 효과가 나타나, 방문수요증대에 한계가 있음.

- 서울, 대전 등 주요 관광시장으로부터 예산군까지 타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접근이 가능한 고속도로, 항로 등이 없어, 예산군 방문 관광객들은 반드시 인근 시군을 경유해야 함. 관광객

들이 예산군을 방문할 시 경유하게 되는 인근 시군의 관광지들은 예산군 방문을 촉진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예산군 방문 관광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주요 관광자원과 예산군 중심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경제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관광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방문 관광객들이 가급적 지역내에서 체재하며 경제적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군의 경우, 방문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인 덕산온천, 수덕사, 예당저수지 등의 방문객들이 관광지 방문 후 지역내에서 일정시간 체재하지 않고, 곧바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덕산온천의 경우, 서울 거주 관광객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덕산온천 이용 후 예산읍에서 체재하지 않고 예산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소비는 특정관광지에 한정되고 체재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IV. 예산군 관광개발방향

□ 첫째, 정통성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관광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정통성 있는 이미지의 중요성

- 정통성(Orthodoxy) 있는 이미지란, 어떤 유무형의 대상에 대하여 대중적인 공감대로 형성되는 본질적인 이미지를 말함. 정통성의 중요성은 상품과 상점명 등에 각종 원조라는 용어를 붙이고자 하는 노력(원조 닭갈비, 원조 곰탕)에서 알 수 있음 (예:홍길동 고향싸움 등). 정통성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곧, 진실성에 기초해야 하며, 유일한 것만 가능(최초로, 가장 많이 등)하고, 시간의 흐름과, 객관적 인정이 필요함. 또한, 계속 성장, 발전하는 특성을 지님.

○ 예산군의 정통성 있는 자원

- 예산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통성 있는 자원으로는 의좋은 형제 (형제간의 우애), 예산사과(대표 농산물), 호서은행(최초의 은행) 등을 들 수 있음.
- 이중 앞으로 예산군이 이미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테마는 의좋은 형제테마라고 사료됨. 또한 기존에 널리알려져 있는 품질좋은 사과생산지라는 이미지는 이를 활용해 관광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의좋은 형제테마의 가능성

- 의좋은 형제테마는 형제자매, 가족간의 우애를 대표할 수 테마로 콘텐츠로서 그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가족간의 우애를 배울 수 있는 곳, 그를 통해 가족간 화목과 가족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행복한 예산, Happy Yesan 을 추구할 수 있음)

옛이야기로 되살아난 역사 속 형제 이야기

1950년대 이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까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던 이성만·이순 형제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성만 형제는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고 형제간 우애가 깊어 마을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들 형제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세종대왕은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했고, 연산군 때에는 173자가 기록된 비를 세워 주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8년에는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성만 형제의 실존과 행실의 실재를 증거하는 효제비(孝悌碑)가 충남 예산에서 발견되어,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비는 예산 지역 현존 최고의 금석문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어, 198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비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료: www.yes24.com

○ 사과테마의 가능성

- 사과의 대표적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관광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사과생산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관광과 연계하는 농업과 관광의 융복합화 전략이 필요.
-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 기존 농촌관광도 단순한 농산물판매를 벗어나, 마을 및 농가별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농산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이는 농가들이 농가 생산 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농가만의 독자적 농산품 생산체계를 가지고(예를 들면,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사과술 등), 이들 농산품은 다른 곳에서는 구입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농가를 방문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유럽의 사례 참고할 수 있음.

- 프랑스 노르망디 로테로 농장 (Freme Du Loterot) 사례
 - 칼바도스(CALVADOS) 술, 칼바도스 크립 생산
 - 칼바도스 1년에 5,000병 생산(농가에서만 판매),
 - 칼바도스 26만 유로(1년 매출) 순수익의 10%정도
 - 년 7,000명-8,000명 방문
- 이는 농업이 중심인 예산군과 예산군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또한 충남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소재하고 있어, 기술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획 중인 농업기술원내 사과 테마파크조성과도 연계 활용 가능할 것임.

□ 둘째, 인근 시군 관광지를 장벽이 아니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 이는 예산군내 주요 자원과 인근 시군 관광지간 자원별 특성, 관광객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경쟁이 아닌 보완성을 가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임. 연계방법으로는 인근 시군 관광지 방문 관광객이 보다 쉽게 예산군 방문이 가능하도록, 관광정보 상호제공(공동홍보물 제작), 인근 시군과 연계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공동개발, 도로망, 안내체계정비 등 접근체계 개선 등이 가능함.
- 중장기적으로는 타 시군을 거치지 않고 예산군내 관광지로의 직접 방문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등 접근로를 신규 개설하여 주변 시군 관광지로 인한 수요감소효과를 최소화할 필요 있음.
- 예산군으로의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장항선 철도를 이용한 철도여행상품 개발 등도 필요

□ 셋째, 주요관광지와 읍내중심지간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주요 숙박시설을 예산읍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주요관광지 방문객들을 중심지구로 유인하여 체재시간 등을 늘리는 전략이 중요함.
- 단기적으로는 방문객들이 많은 관광지에서 관광지 간, 읍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 택시운행시스템의 개선, 안내판의 정비 등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관광개발시 숙박단지 등은 읍주변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중심지에서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이외, 광시 한우촌 육성 등 음식관광활성화에도 예산군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V. 맺는말

- 예산군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충남도청 이전, 당진-대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주변 여건변화로 관광측면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이들 여건변화가 예산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고에서는 예산군 관광의 문제점으로 대표관광이미지의 부재, 주변시군관광지로 인한 예산방문의 관광장벽효과 발생, 주요관광지와 지역중심지와의 공간적 분리로 경제효과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위해, 의좋은 형제테마와 같은 정통성 있는 지역관광이미지 구축, 주변 시군 관광지가 예산군 방문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벽효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군 관광지와 연계,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파급효과 극대화 하기 위해, 지역중심지 방문을 유도하여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예산군내 관광지와 연계, 향후 개발시 중심지 인근에 숙박시설 건설 등을 제시 하였음.
- 향후, ‘의좋은 형제이야기’는 예산군 만이 갖고 있는 정통성 있는 테마이므로 지역관광이미지 구축을 위해, 이를 활용한 예산군 이미지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 고 문 헌 >

- 문화관광부(2006),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 박철휘(2005),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심포지움발표
집』 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사문화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예산군
- 이인배, 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2006.12.19.
- 예산군, 『서해안 관광일번지 예산』 홍보물
- 예산군(2007), 예산군 내부 통계자료
- www.yesan.go.kr
- www.yes24.com

제3주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신도청 건설에 따른 예산군의 지역개발 방안

윤 준 상

(공주대학교 교수)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신도청 건설에 따른 예산군의 지역개발 방안

I. 들어가는 글

- 충남도청이 예산군 삼교읍과 홍성군 홍북면에 걸쳐 약 1,000만 평 규모로 2012년까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도청이전 예정지역 중 예산군은 삼교읍 목리·이리 전 지역과 신리·수촌리 일부지역에 걸쳐 약 300만평을 차지함.
- 도청이전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지역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보다는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앞으로 닥치게 될 변화를 가늠해 보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이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함.
- 또한 2008년 개통될 예정인 당진-대전고속도로는 현재 예산군에서 대전광역시까지 1시간 30분의 소요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는 예산군의 서북부와 동남부를 축으로 중심부를 관통하여 관내에 신양, 예산, 고덕 등 3개의 IC와 1개의 휴게소를 건설하게 되어 고속도로 접근 소요시간이 1시간 내의 편리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충남도청이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장항선철도 확장 등으로 예산군의 지역공간 및 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내륙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성, 개발격차의 심화, 공간적 통합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깨끗하고 다양한 자연자원,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 첨단농업바이오생산기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한다면 충남의 중심지로서 부상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예산·홍성이 신도청이전지로서 확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축을 서해안 및 충남 내륙중심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충남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지역개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충남도청이전의 개요 및 파급효과

1.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

- 그동안 천안~대전간 경부축과 서북부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서해안 및 충남내륙지역의 공동화를 유발되었음.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대전·청주·천안이 광역도시권화되는 경우, 행정도시권은 수도권 확장의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충남 내륙지역의 흡입효과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예산·홍성이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을 계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권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축을 서해안 및 충남 내륙중심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충남의 균형발전의 거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발전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약 70km에 입지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충남도청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2. 충남도청의 개발 개요

1) 충남도청이전관련 계획

- 도청이전계획의 개요
 - 목표연도 2030년이며, 계획인구 120,000인
 - 인구밀도를 100인/ha~150인/ha로 계획시 10km²~15km²로 추정
 - 관리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남악신도시와 같이 개발면적의 3배 적용시 30km²~45km²가 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개발지를 중심으로 반경 4km를 관리면적으로 계획할 때에는 23 km²로 예상됨
 - 충남도청 이전시 총면적 9,876천m²중 홍성군 행정구역에 속한 홍북면 일원의 면적 6,260천m²를 도청 및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수요로 산정
- 신도청 건설에 따른 제조업 위치 및 개발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재정비, 산업용지 공급계획 등
 - 예정된 산업단지 면적은 66만 3000m² 이지만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기존면적 외 주변지역에 240만 m²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
- 충남도는 도청 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해 예산·홍성군을 교육특구로 지정할 계획
 - 교육도시 건설은 인구유입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요인임
 - 교육특구지정을 통해 지역군수의 공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며, 교원인사권과 학교시설 기준과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됨

- 현재 재경부와 협의중이며, 교육청과 예산·홍성군이 공동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됨
- 종합병원 유치 추진
 - 도청신도시내의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의 유치가 필요함
 - 현재 건양대가 병원설립의 의지를 보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3. 충남도청 이전의 파급효과

-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내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써 각 연구기관이나 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최초 입지선정 연구시 검토되었던 일반적인 기대효과, 인구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1) 일반적인 기대효과

-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기대되는 일반적인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도청이전사업의 일반적 기대효과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 ●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 중앙의 관심과 투자확대 유발 ● 도민의 자긍심 고취 ● 행정효율 및 주민관리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초래 ● 도시건설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 입지선정 탈락지역의 주민반발과 지역갈등의 심화 |

2)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추정인구

- 도청과 유관기관 등의 이전이 대전·충남지역에 초래할 인구유발(분산)효과는 약 12만 8천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새로운 인구유입을 초래하기보다는 대전시에 소재한 현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에 따른 직원, 부양가족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주로 대전·충남지역의 인구를 재배치 또는 분산하는 효과라 판단됨

<표 2>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추정인구

| 구 분 | 유발인구(명) | 추정방법 |
|-----------------------|---------|---|
| 도청이전신도시 근무인력 이동 | 48,467 | • 이전기관의 근무이전과 이에 따라 이주가 예상되는 인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발생하는 간접유발 인구를 고려하여 추정 |
| 산업단지 건설 및 교육 연관 | 49,411 | • 자족성 연구의 고용인원 및 가구당 인구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
|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이동 | 16,000 | • 행정도시 예정지역 기존주민들의 외부이주 고려 |
| 타도시와 경쟁에서 광역권으로 이동 | 15,000 | • 이주비율 및 실현율을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순이동인구 평균치로 적용하여 추정 |
| 소 계 | 128,878 | -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 도청이전과 함께 신도시로 이주할 대상 기관이나 단체는 당초에는 220여개소로 예상되었으나 충청권 3개 시 도를 모두 관할하는 44개를 제외한 현재 176개소로 예상되며, 이중 공공기관 35개소, 유관기관 141개소가 유치목표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충남도청 신도시 유치기관 조성

| | 당초 | 변경 | 감소 |
|------|------|------|-----|
| 계 | 220개 | 176개 | 44개 |
| 공공기관 | 45개 | 35개 | 10개 |
| 유관기관 | 175개 | 141개 | 34개 |

자료 : 충남도정신문, 도청이전 동반자 유치목표 현실화, 2007년 8월 5일

-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기관은 대전지방국세청 등 국가기관 10개,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등 유관기관 34개로서, 이들 기관은 도청 이전사업 초기부터 이전 대상에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청을 옮긴 후에 후 유치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충남도는 2006년 3월에 나온 ‘도청 이전후보지 선정과 향후 계획’ 용역보고서(충남발전연구원)를 토대로 대전에 있는 도단위 유관기관 220개를 유치 대상으로 정했고 이 중 91개 기관이 이전할 뜻을 밝혔다.

<유치대상 제외기관>

- ▲ 국가기관(10) - 대전국세청, 대전보훈청, 대전국토관리청, 대전교정청, 대전노동청, 충남노동위, 대전세관, 충청체신청, 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 ▲ 유관기관(33) - KT충남본부, KOTRA대전무역전시관, 한국전력공사 충남본부,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 대전상공회의소, 農協중앙회 대전충청본부,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등
- ▲ 이전확정(1) - 충남발전연구원

3)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 충청남도(충청남도, 「충남도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2007)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비용은 약 1조 7,500천억원으로 추정
- 건설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고용창출, 소득창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충남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건설투자비가 1조 7,500억원일 때, 생산유발효과 약 3조 4,00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5,000억으로서 신도시 건설투자에 따른 직간접 유발인구는 총 6만 8,788명으로 추정됨

<표 4> 도청이전신도시 인구계획

| 구 분 | | 2015년 | 2020년 | 2030년 |
|-----|----|--------|--------|--------|
| 인구 | 계 | 50,000 | 90,000 | 12,000 |
| | 홍성 | 25,000 | 50,000 | 70,000 |
| | 예산 | 25,000 | 40,000 | 50,000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도청이전 신도시와 중심상업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도시 중심생활권 형성
 - 신도시의 사회, 경제적 자족성을 뒷받침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고른 발전을 위해 홍성, 예산에 각각 1개의 생활권 배분
 - 남북방향의 개발축(지방도 609호선)에 인접한 중심생활권 A, B를 각 행정구역별 주 생활권으로 설정
 - 산업생활권은 첨단산업용지 중심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징을 가지는 생활권으로 설정

<표 5> 생활권 기능배분 및 인구

| 구 분 | | 기능배분 | 인구 |
|---------|-------------|---|---------|
| 도청이전신도시 | | 행정업무,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자족적 복합신도시 | 120,000 |
| 소생활권 | 중심 생활권A | 행정업무기능 : 지역행정기능 중심 | 24,000 |
| | | 역사문화관광 / 예산권 중심생활권 | |
| | 중심 생활권B | 행정업무기능 : 광역행정기능 중심 | 21,000 |
| | | 중심생활권 / 광역행정기능 / 도청, 도민화합 / 유관기관 입지 | |
| | 지역 생활권A | 주거기능 : 예산권 주거중심 | 29,500 |
| | 지역 생활권B | 주거기능 : 홍성권 주거중심 | 29,000 |
| | | 문화,레저 : 용봉산 자연휴양림 및 수련원 시설과 연계, 첨단산업기능 | |
| | 산업중심 생활권 | 첨단산업단지 중심 : 경제적 자족을 위한 생활권 | 16,500 |
| | | 첨단도시이미지 형성 | |
| 주변지역 | | 홍북면 소재지 : 기존취락정비, 화양역 이전지 주변 역세권 개발 등 | 30,000 |
| 계 | | | 150,000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4. 충남도청이전에 대비한 예산군의 계획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2030년 목표인구 12만인 중 단계별 계획에 의거 2020년 계획인구를 10만인으로 설정하여, 2020년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내 예산군의 인구는 4만인으로 계획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건설과 관련 SOC시설 확충구상을 반영하여 해미공항(해미군비행장(K-Z기지)에 민항기 취항 추진)~신도청, 아산·천안~신도청, 내포문화권연계도로~신도청, 수도권전철연장 등 도로망 확충계획 검토 중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를 연결하는 남북축연결도로망(고덕IC~도청이전지)을 건설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 충남도청 이전시 총면적 9,876㎡중 예산군 행정구역에 속한 삼교읍 일원의 면적 3,660천㎡를 도청 및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수요로 산정
- 예산군의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에 대한 요구사항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IC~도청신도시간 도로개설
 - 도청신도시~덕산도립공원간 직선도로 개설
 - 대학과 산학협력용지를 예산·홍성 경계에 배치
 - 환경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공급 처리시설 이동
 -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 삼교 부도심권을 물류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

III.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1.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는 전국간선도로망(7×9)의 동서 6축의 일부 구간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임
 -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이 노선은 대전과 충청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여 서산, 당진, 아산지역의 대단위 공단과 아산항의 물동량을 중부권으로 직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연결 고속도로 현황
 - 본 노선의 시점부인 신성JCT는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연결
 - 종점부인 남당진 JCT에서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총연장 166.2km, 왕복 4~6차로임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4차로)와는 서공주 JCT에서 교차하며
 - 공주~서천간 고속도로(4차로)가 우성 JCT에서 연결될 계획

2) 사업개요

- 이 노선은 기본설계 당시 94.3km이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연장 91.58km임
 - 시 점 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 종 점 부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 사업규모 : 연장 91.59km. 4차로
- 기본설계 : '93. 6 ~ '94. 5
- 실시설계 : '94. 12 ~ '96. 6

<표 6>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노선개요

| 구 분 |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
|--------------|--|
| 사업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91.58km • 차로수 : 4차로 |
| 유 출 입 시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C : 8개소 • JCT : 3개소 |
| 교량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m 이상 : 36개소 • 100m 미만 : 74개소 |
| 터널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m 이상 : 13개소 |

자료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2.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

1)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

- 도로의 일부 또는 전구간의 개선은 도로망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간의 통행비용을 줄이고, 두 지역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토지이용, 인구 및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신규도로 개발은 도농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주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 지역주민들의 정주형태 측면에서 보면 한 단계 위의 도시로 생활권이 이전
- 중심지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중심기능이 약화되고 신규 중심지의 기능이 강화
- 접근성의 개선은 새로운 토지수요를 유발시키고 이것은 다시 인구흡입과 통행량의 증대를, 통행량의 증대는 도로의 개선을 유발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이 포화된 도시내부의 도시적 토지이용의 수요는 접근성 개선을 유발하여 그 주변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느 이상의 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은 통과지역으로서 도시면적은 증가되나 인구는 감소하는 이중성을 가짐
-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수송시간 단축, 비용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발달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예견됨
-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대됨
- 농수산물도 수송시간 단축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며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의 발달가능성이 증대
- 신산업지대축의 형성 등을 통한 일자리와 생활문화기반시설을 동시에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인구유출로 심각한 지역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의 중심산업이 농업인 지역은 쇠퇴가 진행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구매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산업도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 인구 3만 미만의 읍급 도시들은 더욱 소읍화할 가능성이 높고 중심성, 특화가능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음

- 고속도로의 개통은 사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서 양향을 미쳐서 능률성, 상업성, 개인주의, 교환성이 강조되면서 농촌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지역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구비해야 할 것

<표 7> 도로확충 등 개발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

| 구 분 | 도로확충 | 관광단지 | 공업단지 |
|------------|--|--|---|
| • 1차적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거리 단축, 주행비절감, 혼잡도 완화, 행동권역 확대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쾌적성, 편리성제공 • 지역산업 활성화 • 생활기반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증가, 체제·숙박객 증가, 소비단가의 증대를 통하여 관광산업활 성화, 고용기회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 재정증대효과 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수 증가, 단위생산액 및 부가가치 증가를 통하여 제조업 활성화, 고용기회 창출 및 인구유입효과, 재정증대효과 기대 |
| • 부차적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관효과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 기대 • 소득증대의 승수효과 기대 • 유발인구에 의한 경제활성화 및 순환효과 | | |

자료 : 김대식, 고속도로 개발 전후의 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인구변화 특성, 농촌계획 제 9권 2호, 2003.
 김원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대전·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제무역연구 제 18권 1호, 2002.
 원광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보 제 16집 1호, 2003

<표 8> 고속도로확충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정적 파급효과>

| 역기능 | 비고 |
|----------------------|--|
| • 수도권 지역으로의 예측 가능성 | -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비수도권지역의 자생력 상실 |
| • 지역상권의 약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본과 인구의 역외유출 예상 - 이에 대한 영향분석 등 실질적인 지역개발전략 수립필요 |
| • 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의 파괴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소규모의 공업단지의 개발을 통한 자연환경 파괴 - 환경영향총량평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필요 - 역사문화자원의 훼손 우려가 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정체성 상실우려가 증대 |

자료 : 이재길, 2001.3.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령시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고대회.
 전경구, 고속도로가 낙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9권 2호, 1999.

2)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

- 당진~대전고속도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그동안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았던 충청권의 동서지역을 관통하여 '서울-대전'이라는 대도시와 서해안고속도로, 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의 국토의 전체지역을 연결하게 하는 도로이고, 수려한 산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로인 만큼, 물류 수송 및 인적 이동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물류·관광·휴양 등 많은 산업에서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이 변화·개선되었음
- 이에 따라, 대상지역을 활용코자 하는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관광·휴가·여가 활동이나 업무상의 통과나 방문객, 그리고 물류의 이동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97년 교통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교통량보다 약간 감소

<표 9>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결과

| 노 선 | 2006년 | | 2011년 | | 2016년 | | 2021년 | |
|---------------|--------|------------|--------|------------|--------|------------|--------|------------|
| 당진 ~ 대전 | 기예측지 | 본연구 예측지 | 기예측지 | 본연구 예측지 | 기예측지 | 본연구 예측지 | 기예측지 | 본연구 예측지 |
| | 32,286 | 31,223 | 37,604 | 36,659 | 44,152 | 42,340 | 49,350 | 47,172 |

자료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표 10>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구조물 사업물량

| 구 분 | | 단 위 | 물 량 | 비 고 |
|------|--------------------|--|-----------|-------|
| 교 량 | 장 대 교 (100m이상) | 개소/m | 36/12,543 | IC 제외 |
| | 소 교 량 (100m 미만) | 개소/m | 74/2,845 | IC 제외 |
| 터 널 | | 개소/m | 13/6,093 | - |
| 출입시설 | | • IC : 8개소 (노은, 장기, 북공주, 유구, 신양, 예산, 고덕, 면천) • JCT : 3개소 (신성, 서공주, 남당진) | | |

자료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3.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의 과제

- 당진-대전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모형 및 지표개발에 의해 확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핵심분야에 대한 변화 추이나 평가를 통해 국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전략, 지역개발대책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 앞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고속도로 건설개통의 총생산유발효과와 소득제고 효과의 추정을 통한 지역의 변화과제에 대응방안이 필요함
-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분적인 통과지역, 인구유출 가능성 지역,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수립이 필요
 - 거점유인시설 및 자원개발이 부진할 경우,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충청권의 동서지역을 연계하는 통과지역으로 전략할 우려가 크고, 수도권과 주변의 대도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발생 가능성
 -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자족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공공시설 공급계획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이는 정주체계의 분석 및 미래 도시체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확인이 가능
 - 특히 예산군은 확실한 중장기계획 없이 발전되어 향후 발전축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중심기능이 미약한 농촌 중심지임
 - 중심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쇠퇴가 진행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구매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도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형평성 차원의 합리적인 안배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되도록 유도
- 다양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계획수립, 평가, 계획의 수정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

IV. 예산군의 위상과 잠재력분석

1. 예산군의 위상

1) 인구현황

- 예산군의 인구는 약 9만 1천명으로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상위 7위. 충청남도 상위 2위임
- 전국 군지역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울주군이 180,467명으로 인구가 가장 크고, 예산군이 9만 명으로 상위 7순위
- 예산군은 당진군과 함께, 충남지역 내에서 인구가 가장 큰 지역으로 충남 인구의 10.9% 임

<표 11> 전국 군 지역 인구 순위(2006년)

| 지역 | 인구 | 순위 |
|-----|---------|----|
| 울주군 | 180,467 | 1 |
| 달성군 | 160,693 | 2 |
| 청원군 | 138,707 | 3 |
| 당진군 | 127,167 | 4 |
| 칠곡군 | 114,612 | 5 |
| 여주군 | 106,270 | 6 |
| 예산군 | 91,452 | 7 |

* 출처: 통계청, 2006.

- 예산군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천안(55%), 아산(31.3%), 서산(6.3%) 등의 예산군 주변 대도시의 인구는 증가세
 - 반면, 천안, 아산, 서산, 연기를 제외한 충남의 나머지 시·군 인구는 감소
 - 예산군의 인구 증가율은 -16.9%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줄고 있음

<표 12> 전국 군 지역 인구 순위(2006년)

| 구분 | | 인구 | 인구감소율 (‘95~‘05) | 인구구성비 (%) | 세대당 인구수(명) | 인구밀도 (명/km ²) | 고령화율 (%) |
|----------|------|-----------|--------------------|--------------|---------------|------------------------------|-------------|
| 충청 남도 | 충청남도 | 1,982,498 | 6.85 | - | 2.6 | 230.5 | 13.2 |
| | 천안시 | 518,818 | 54.96 | 26.2 | 2.7 | 815.4 | 6.7 |
| | 아산시 | 208,448 | 31.32 | 10.5 | 2.4 | 384.4 | 10.6 |
| | 서산시 | 151,283 | 6.29 | 7.6 | 2.7 | 204.6 | 12.5 |
| | 논산시 | 135,210 | -9.97 | 6.8 | 2.6 | 243.7 | 16.0 |
| | 공주시 | 130,595 | -5.50 | 6.6 | 2.7 | 138.8 | 15.2 |
| | 당진군 | 122,016 | -0.14 | 6.2 | 2.7 | 183.7 | 15.3 |
| | 보령시 | 108,639 | -11.69 | 5.5 | 2.6 | 191.1 | 15.1 |
| | 예산군 | 91,452 | -16.90 | 4.6 | 2.6 | 168.4 | 18.5 |
| | 홍성군 | 91,432 | -9.96 | 4.6 | 2.6 | 206.0 | 23.0 |
| | 연기군 | 85,395 | 5.52 | 4.3 | 2.6 | 236.3 | 14.2 |
| | 부여군 | 81,850 | -21.00 | 4.1 | 2.6 | 131.0 | 20.8 |
| | 태안군 | 64,075 | -11.26 | 3.2 | 2.6 | 126.9 | 17.1 |
| | 서천군 | 64,676 | -24.13 | 3.3 | 2.5 | 180.8 | 21.9 |
| | 금산군 | 59,014 | -16.76 | 3.0 | 2.5 | 102.5 | 19.4 |
| | 청양군 | 35,144 | -23.16 | 1.8 | 2.5 | 73.3 | 24.1 |

* 출처 : 통계청, 2006

- 예산을 포함한 충남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
 - 예산군의 고령화율은 18.6%로 고령화현상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
 - 충남의 시·군별 중에서 예산의 고령화율은 6위로 높은 편임

- 충남의 인구 이동율은 0.3%로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음
- 예산군은 전입에 비해 전출이 많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표 13> 예산군 및 주변지역 인구 이동율(2005년)

(단위 : 명)

| 구분 | | 전입 | 전출 | 순이동 | 이동율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325,444 | 320,445 | 4,999 | 0.3 |
| | 천안시 | 113,736 | 108,254 | 5,482 | 1.1 |
| | 아산시 | 43,098 | 40,714 | 2,384 | 1.1 |
| | 서산시 | 22,417 | 22,777 | -360 | -0.2 |
| | 논산시 | 18,498 | 19,729 | -1,231 | -0.9 |
| | 공주시 | 18,455 | 19,054 | -599 | -0.5 |
| | 당진군 | 18,743 | 15,989 | 2,754 | 2.3 |
| | 보령시 | 14,287 | 15,059 | -772 | -0.7 |
| | 예산군 | 9,237 | 10,062 | -825 | -0.9 |
| | 홍성군 | 11,453 | 11,660 | -207 | -0.2 |
| | 연기군 | 12,401 | 12,719 | -318 | -0.4 |
| | 부여군 | 7,641 | 9,090 | -1,483 | -1.8 |
| | 태안군 | 7,092 | 6,886 | 206 | 0.3 |
| | 서천군 | 5,663 | 6,736 | -1,073 | -1.7 |
| | 금산군 | 6,505 | 8,022 | -1,517 | -2.6 |
| | 청양군 | 3,131 | 3,608 | -477 | -1.4 |

2) 재정현황

- 예산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6,264백만원, 지방세 20,805백만원, 세외수입 59,128백만원으로 비교적 작은 재정 운영
- 일반회계의 경우, 충남 군 예산 평균 256,464백만원에 근접한 수준
- 충남 군 단위 지역 중 당진군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재정자립도는 13.6%로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
 - 주변 군 단위 지역 평균 15.6%보다 낮은 수치로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음

<표 14> 재정 현황비교(2005년)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일반회계 총예산 | 지방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2,484,542 | 744,118 | 414,608 | 29.0 |
| | 천안시 | 710,749 | 199,113 | 215,792 | 48.9 |
| | 아산시 | 512,455 | 113,343 | 190,845 | 39.9 |
| | 서산시 | 415,166 | 77,787 | 128,227 | 23.0 |
| | 논산시 | 274,673 | 29,292 | 94,125 | 14.7 |
| | 공주시 | 328,151 | 31,109 | 89,535 | 19.2 |
| | 당진군 | 353,113 | 49,195 | 59,094 | 32.5 |
| | 보령시 | 393,468 | 27,233 | 141,945 | 20.5 |
| | 예산군 | 252,523 | 20,805 | 59,128 | 13.6 |
| | 홍성군 | 278,734 | 20,080 | 67,713 | 11.5 |
| | 연기군 | 221,197 | 24,518 | 65,400 | 21.2 |
| | 부여군 | 286,836 | 18,335 | 71,391 | 12.4 |
| | 태안군 | 295,489 | 18,358 | 135,850 | 25.5 |
| | 서천군 | 236,368 | 16,240 | 61,593 | 10.1 |
| | 금산군 | 176,947 | 15,082 | 98,101 | 18.6 |
| | 청양군 | 203,231 | 7,476 | 67,962 | 11.6 |

3) 산업현황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높고, 2차 산업은 취약
 - 1차 산업(49%) > 3차 산업(39%) > 2차 산업(12%)
 - 3차 산업 중 도소매업(21%), 숙박 및 음식점업(13%)이 큰 비중을 차지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 종사자수의 49%인데 반해 1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임
 - 3차 산업(62%) > 1차 산업(20%) > 2차 산업(18%)

2. 예산군의 SWOT분석

<표 15> 예산군의 SWOT 분석결과

| 강 점 | 약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자연 환경과 지역이미지 - 비옥하고 넓은 토지자원과 낮은지가 - 넓은 호당 농업경지면적 -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보유 - 수도권, 대전권, 한강해권에 인접 - 역사적으로 물, 산이 풍부하고 자부심이 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심화 -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의 부재 - 관광상품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미흡 - 예산읍 1극 중심의 공간구조 - 도시계획 정비 미흡으로 기반시설 취약 - 교육 및 문화여건 열악 - 각종 개발규제(농업진흥지역, 토지 거래허가제) |
| 기 회 | 위 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북부의 산업축과 연계 -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효과의 파급 - 도청 유관기관의 이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 도로망 확충(당진~대전, 평택~홍성 고속도로) - 철도망 확충(장항선 개량, 서해안 철도 신설, 수도권 전철연결 등) - 3Es(Entertainment, Excitement, Education)을 결합한 주제별 관광의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인접지역과 경쟁 - FTA에 따른 농업환경변화와 새로운 시도부족 - 공장이전에 따른 난개발과 지역정체성의 파괴 -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구유출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불합리적 의사결정 - 변화와 혁신의 경험부족과 두려움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참조

V. 예산군의 지역개발전략

1. 대응방향

- 예산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제 요소를 기준으로 SWOT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약점의 보완과 위협의 최소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략수립을 위한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I 사분면 : 기회요소를 이용한 강점의 극대화 ■ 제 II 사분면 : 기회요소를 이용한 약점의 보완 ■ 제 III 사분면 : 위협요소에 대비한 약점의 보완 ■ 제 IV 사분면 : 위협요소의 최소화로 강점의 유지 |
|--|

| | |
|---|--|
| <div>II</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 배후지 기능의 강화 • 첨단/환경 농수산업의 육성 • 문화역사와 관련 기관유치 •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구축 | <div>I</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 문화/관광 중심지기능 강화 • 지역중심성 제고 • 광역교통망의 확충 |
| <div>III</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균형개발노력 촉구 • 인접지역과의 공동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방식 도입 • 세계화에 적합한 주민의식 고취 | <div>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상품의 시장성 강화 • 환경친화적 관광자원의 개발 •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 균형발전의 중개자 위상정립 |

[그림 1] 예산군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2. 예산군 발전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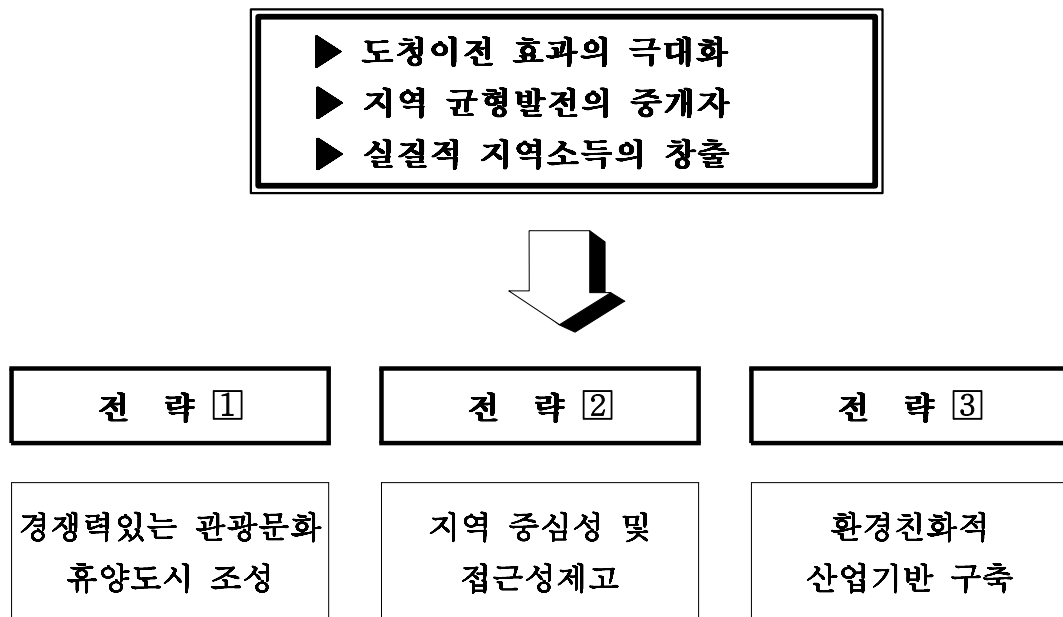
- 예산군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21세기 신도청시대에 적합한 예산군 발전의 기본 방향은 앞서 SWOT분석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도청이전사업과 당진-대전고속도로개통에 따른 파급효과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결과를 분석한 바를 종합해 보면, 신도청시대의 예산군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1)도청이전사업의 추진, 2) 지역불균형의 심화, 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로 정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군 발전의 기본방향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청이전 효과의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중개자, 실질적 지역소득의 창출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정립해야 할 것임.
 - 도청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대도시의 배후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위상의 제고와 인구 유입을 꾀하고, 개방적인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전략이 필요
 - 지역 균형발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서북부권 교통의 요충지 기능과 동서부의 개발 파급효과를 전 지역에 확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강구해야 할 것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첨단/환경 산업 및 농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친환경적 첨단 제조업 유치와 육성이 필요함

<표 16> 예산군 발전 기본방향과 SWOT분석결과의 관계

| | |
|-----------------|--|
| 도청이전효과의 극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청소재지와 주변 광역권의 배후지 기능 강화 • 중앙, 도청 유관기관 이전시 예산군에 적정기관 검토와 유치 • 세계화와 개방화에 적합한 주민의식 고취 |
| 지역균형발전의 중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통한 서북부권 교통요충지 기능 •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개자 위상 정립 •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침 적극 수용 및 건의 • 인접 지역과 개발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복지·환경 구축 |
| 실질적 지역소득의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의 첨단/환경 산업 및 농업육성 •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의 시장성 강화 •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방식 도입 • 친환경적 첨단 제조업 유치와 육성 |

3. 예산군 발전전략의 도출

- 이상에서 살펴본 예산군 발전의 기본 방향과 SWOT분석 결과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도청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광역권 배후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관광문화·휴양도시를 조성」 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의 정비 등과 함께 「지역중심성 및 접근성을 제고」 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의 구축」 이라는 21세기 신도청시대를 준비하는 3가지 발전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음



[그림 2] 예산군 발전전략의 도출

4. 예산군의 지역개발전략 및 과제

1) 지역중심성 및 접근성 제고

-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시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군만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점도시와 농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인접도시와 보완 및 협력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 여건변화,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하여 기능별 거점도시를 선정하고 특화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간 상호작용 및 지식교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을 통한 정주체계 개선
 - 관광·휴양권(덕산, 봉산면지역) : 덕산도립공원과 덕산온천, 그리고 주변의 많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개발

- 기반산업권(고덕, 삼교, 신암, 오가지역) :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특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 정주시설권(신양, 대술, 예산읍지역) : 행정, 주거와 병행하여 첨단산업시설단지화 조성
- 호반권(웅봉, 광시, 대흥지역) : 예당호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하여 수변문화 중심지로 개발
-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함
 - 농산물, 자연 및 문화자원, 산업단지 및 특화산업 등 지역부존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시설과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
 - 지역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부존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함
- 당진-대전 고속도로는 충남지역을 완전히 동서로 횡단하여 대전권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서해안 개발내지는 환황해권 시대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임.
 -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벨트와 산업벨트, 그리고 물류 중심이 형성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예산군의 지역경제의 주체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으로 잠재력은 증가했으나 지역간 연계 교통망체계가 아직 미비하여 중소 생활권내 자족성, 통합성이 미약하며, 중소 생활권간에도 연계가 미흡하고 공간통합성이 미약하여 win-win차원의 보완·상생관계를 통해 상생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고속도로와 계획된 연계도로를 차질없이 완공토록하고 지역간 교통망 정비추진이 필요함
 -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

- IC 연접부에 첨단산업·정보관련시설·연구개발시설·물류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개발
- 특히 삼교읍 일원에 신도청이전지와 연계하고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나 유통센터설립이 필요함

2)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 휴양도시 조성

- 충남도청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함.
 - 행정기능 외 산업과 주거, 문화와 복지 등 삶의 전 부문에 있어서 충남을 대표하는 중심거점으로 조성함.
- 도시의 편의성과 농촌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 휴양도시로 조성함.
 - 농업과 특화산업, 정주체계가 어우러지는 선진형 전원휴양도시 모델 구축
 -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시장 유치전략 수립
 - 수덕사, 덕산온천, 예당저수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명소 조성
- 농촌 중심지의 고용기회 및 중심기능의 확충과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함
 - 농촌 중심지의 생산기능 확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화를 제고하고, 생산과 주거가 통합된 생활기반을 조성함
 - 농촌지역내 서비스수요의 충족을 위해 쇼핑·의료·교육 등 중심도시의 중심기능을 확충하되, 특히 문화·여가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문화시설 및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도록 함

- 농촌 중심지와 주변지역, 중심지간 교통·정보통신 연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함
- 선진형 문화·교육·복지 기반 구축
 -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도입
 - 교육특구 조성을 통한 명문학교 유치·조성 등을 통한 인구유입유도와 지역 내 인구유출 억제
 - 평생학습도시건설 및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매력 있는 시민 사회 구축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

- 친환경적 첨단 제조업을 유치·육성하여 예산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의 구조전환과 고부가가치화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간 융복합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
 - 천안, 당진, 아산 지역으로부터의 기업유치와 수도권의 기업 및 공장이전을 유도
 - 장기적인 계획적 수용을 통한 지역의 환경파괴와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
 -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
- 예산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제조업체의 확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장항선 철도를 따라 천안, 아산으로부터 예산으로의 확산이 진행 중
 - 장항선 철도를 따라 아산→예산→서천으로의 제조업의 확산이 예상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제조업 유입 가능성이 커짐

- 현재 당진군에 집중되어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사업체 유입 효과가 점차 예산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대전광역권의 기업체 유입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농촌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 농업, 신산업을 육성하여 활기차고 친환경적인 농촌을 만들
 -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할 경우 친환경적 도시개발기법을 강력하게 적용함
 - 농촌의 자연경관 및 환경자원을 기반으로 도시민의 현장체험, 자연관찰, 휴양·여가선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킴
- 산업클러스터에 의한 지역산업 브랜드화
 - 지역산업의 재생을 위해 예산군에 적합한 산업(예: 사과, 동물약품 등)을 개발하여 기업체, 행정, 대학, NGO 등이 연계하여 인적, 정보 등의 교류를 통한 경쟁력 향상 도모
 - 국립대학인 공주대와의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를 활용한 산학연대에 의한 지역산업만들기 추진
 -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시행중인 특징있는 연구성과와 기술 개발결과를 지역산업과 접목.
- 지역순환형 경제창출운동 전개
 - 지자체와 지역NGO의 지역순환형 경제창출운동 전개를 통해 지역내 기업에 발생할 수있는 것은 가능한 지역내에 발주하고 지역내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시스템 구축
 - 음식점의 식료품구입은 지역농가로부터 취하는 예
 - 지역내에 돈이 순환하게 하여 지역 속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게 함.

Ⅵ. 예산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1. 지역공동화의 의의와 원인

1) 중심시가지의 공동화현상

- 지금까지 도시발달과정에 있어 도시 중심부는 관청이 소재하던 중심지에서 상업지로서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
- 이제 직장이 주 무대가 된 중심시가지에서 IT산업발전에 따른 사업장의 축소 및 직무인력의 집합소로서 더 이상 그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고 있음
- 특히 중소도시의 지가상승을 주도한 중심시가지는 관청과 상업시설이 떠나가 주간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사람이 살지 않고 빈 건물만 남겨진 황폐한 공간이 되고 있음
- 현재 예산군의 중심시가지는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 빈 점포와 인구유출이 급속히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예산군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대안마련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도청 이전과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예산군의 인구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유출될 것이 예상됨

2) 공동화의 원인

- 중심시가지로부터의 거주기능, 업무기능, 공공시설 등의 유출
 - 거주자 기능의 교외화와 자동차이동이 가능해 집에 따라 유출
 - 비싼 임대료, 주차장 부족, 교통정체 등 접근편리성의 악화로 외곽 이전

- 자동차에 따른 중심시가지로의 접근편리성 저하
 - 주차장부족, 도로사정 악화로 인한 정체
 - 소비자 행동공간의 확대를 위해 먼 곳까지 이동 가능
- 상점가의 노력부족
 - 독신세대의 증가 야행성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젊은 층의 증가 패턴에 대응하지 못함.
 - 매력 있는 점포로의 투자정지, 빠른 폐점시간, 빈점포의 방치 등 상점가의 집객노력의 부족
- 신진대사의 부족
 -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 가치로서의 평가가 높게 되어 이용가치와 맞지 않음.
 - 토지임대의 기피로 신규참여자의 진입이 억제 됨.
- 중심시가지에 대한 관심저하
 - 중심시가 자체로서의 매력의 상실
- 공동화의 배경원인에는 자동화와 이용가치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지가는 너무 높음
 - 중심시가지를 공동화해서 새롭게 재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외 대형쇼핑센터의 신설금지나 혹은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강구

3)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

- 우선 특색 있는 사업주체로서 지역의 역량 있는 NGO, NPO의 역할이 중요
 - 타운매니지먼트(TMO)의 실행을 통해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의 추진과 사업수익을 스스로 발생시키도록 함.

- 상업자와 주민, 상공회의소, 행정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추진
- 미국에서는 지역의 외부로부터 인재를 등용하여 맡기는 사례가 많음. 일본도 전담 요원을 고용하여 이들을 마을만들기 전문가로 양성함.
- 거리의 안정대책과 미화대책, 이벤트개최, 이미지의 향상, 빈점포대책, 주차장관리 등을 추구하여 지구의 활성화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함.
- 상점가의 매력증진 업종의 적정배치, 신업종·업체의 유치를 통해 상점가의 매력을 높임.
- 기존 인프라(빈공간, 빈점포, 노면 등)를 효율·효과적으로 활용
 - 중심시가지로의 교통량 억제를 위해 바이버스를 신설
 - 현존하는 도로 폭을 줄여 통과차량을 다른 도로로 유도
- 시가지 주민들과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치
 - 지역화폐의 활용
 - 주차장과 점포나 이용시설에 대한 이동과 보행을 최소화함
- 지역 밖으로부터 소득을 유인
 - 기존 중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산업인프라를 활용
 - 역사적 유물과 과거의 전통문화, 산업 그리고 시설 등을 활용

4)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

- 홍문표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의 경제적 공동화를 예방하고 신도의 성장과 함께 원도심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문제
- 지역기업 입찰참여 할당제
- 고용안정화 지역으로 지정
- 대규모 아파트형 공자의 증설허용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외국학교기관이 설립
- 세금감면제도 시행
- 특수목적고 설립 및 교육재정 지원 등

Ⅶ. 결론

- 충남도청이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둔 예산군의 지역발전에 자극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지역발전의 외부효과를 활용하는 한편 신도청건설 사업이 성공하도록 적극협력하고 지원해서 신도청 건설사업 기대효과가 완전히 예산군에 나타나는 내부효과를 동원해야 할 것임.
-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분적인 통과지역, 인구유출 가능성 지역,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면 예산군은 충청권의 동서지역을 연계하는 통과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수도권과 주변의 대도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되도록 유도
 - 다양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계획수립, 평가, 계획의 수정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대원칙을 지침으로서 산업과 문화,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군을 건설해야 하며, 군민의 소득과 복지가 향상된 도농복합형 지역개발의 전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신도청이전과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예산군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미래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을 것이나 적절한 지역개발정책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예산군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실행하여 예산군이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축을 서해안 및 충남 내륙중심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충남의 균형발전의 거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발전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참 고 문 헌 >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마-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 권오혁·황병천, 소도시 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김갑성·박진덕, 환황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한·중·일 3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지역연구, 제 22권 3호, 2006.
- 김대식, 고속도로 개발 전후의 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인구변화 특성, 농촌계획 제 9권 2호, 2003.
- 김원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대전·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제무역연구 제18권 1호, 2002.
- 김정민, 도청이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목포포럼 주제발표문, 2000.
- 박종철, 전남 신도청도시(남악신도시) 개발방향,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 제 19집, 1999.
-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 원광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보 제 16집 1호, 2003.
- 이재길, 2001.3.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령시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고대회.
- 전경구, 고속도로가 낙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9권 2호, 1999.
- 조성배,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06.